

# 개성공단 재발방지·책임인정 주체 핵심 쟁점

### 정부, 14일 7차회담 준비 본격 착수

### 난제 여전속 北 입장 조금씩 변화 주목

정부가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게 될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의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는 공단가동 중단사태의 재발방지책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와 발전적 정상화를 제도화하는 공동 운영기구 등에서 상당한 의견집결을 이룬 남북은 여전히 이 문제를 놓고 협상에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는

“주체”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일방적인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정부는 6차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재발방지 관련 조항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북측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

하는 통제행위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고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7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6차 회담의 최종 제시안에 비해서는 다소 변화된 안을 내놓았다. 당시 제시했던 “남측이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부분엔 변함이 없다.

조평통 담화는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과거에 비해 북측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요구와는 달리 공업지구 중단사태의 재발방지 주체를 여전히 북과 남으로 명시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7차회담의 성패는 이 부분에서 남북이 어떻게 절충점을 찾았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측이 재발방지의 주체를 자신들로만 한정하는 것을 받

아들기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7차회담에서 합의될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합의서의 문구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합의문의 서명 주체와 재가동 시점 문제 등도 남북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다. 북한은 합의 즉시 공단의 재가동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약속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 “北 회담제안, 우리정부 승리 아니다”

### “형제 국가 감싸 안아야” 박지원, 정부 전향적 촉구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과 관련, 8일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승리하고 북한은 무릎을 꿇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형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경민입니다’에 출연해 “남북관계라는 게 서로 이해를 하면서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늘 벼랑 끝 외교를 했는데 이번에 개성공단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정부의 체면을 좀 살린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오히려 여유를 보이고 더 감싸안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고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도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협상 태도를 촉구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7차 실무회담 전망에 대해서 “북한이 제의한 내용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남과 북이 (개성공단이)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14일에는 완전 합의가 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박 의원은 청와대의 5차 회담 제안에 대해 “국적이 꼬이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여의도에서 청와대 가는데 15분, 20분 걸린다. 청와대 문은 열려 있는데, 제1야당 민주당 당대표인 김한길 대표에게만 면 거리가 되고 닫힌 문이다. 박대통령이 김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자치 말살하는 예산편성기준 철회” 공무원노조 광주·전남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8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안전행정부 발표한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전혀 무시하는 형태”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일·숙직비가 일률적으로 한도가 제한되고 직원능력개발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와 중복된다”고 하여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액여비도 일률적으로 상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별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이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일·숙직비는 밤샘근무에 따른 인건비이고, 월액여비는 업무추진에 있어 최소한 여비”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안행부가 예산편성 기준을 결정하면서 어떠한 여론수렴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만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또 “무분별한 4대 강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 및 국가에서 전액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비 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예산의 문제를 공공부문 노동자의 급여를 삭감할 통해 확보하려고 하는 등 지방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라마단 끝나고 집으로

라마단이 끝났음을 알리는 무슬림 축제인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를 앞두고 8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기차역에서 집으로 향하는 무슬림들이 열차의 지붕 위까지 올라타는 등 열차가 초만원에 이르고 있다. /연합뉴스

##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하루 300t 바다 유출

### 日 원자력대책본부

일본 정부는 하루 약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고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원자력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하루 약 1000t의 지하수 중 약 400t은 원자로 건물 지하 등에 유입되고, 나머지 600t 가운데 약 300t은 건물 지하와 연결된 트렌치(해수 배관과 전원 케이블 등이 통과하는 지하도)에 쌓인 고농도의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쿄전력이 지반 개량 등 현재 진행 중인 오염수 유출 방지 대책

을 시행하면 오염수의 해양유출은 하루 약 60t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대책본부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수 양을 시간(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에 제시한 것

대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도쿄전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확실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은 원자로 건물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전 주변의 땅을 얇게 ‘동토(凍土) 차수벽’을 설치하는 데 국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차수벽 공사는 1~2년 정도 걸리며 300억~400억엔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일해공원 표지석 철거 전두환 기념사업 중단을”

### 석영철 경남도의원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 아호를 딴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의 표지석을 철거하고 전 전 대통령 기념사업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의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인 석영철(진보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에서 ‘전두환 추경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특수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납된 추징금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 맞춰 이같이 주장했다.

석 의원은 자료에서 “2007년 심의 조 합천군수 당시 전국적인 반대여론에도 도비 20억원 등 68억원이 투입

된 ‘합천생명의 숲’을 일해공원으로 변경하고 다음해에 군 예산 3천만원으로 전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일해공원’ 표지석을 세웠다”며 “이는 반역사적이고 무개념적인 폭거”라고 밝혔다.

그는 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하나로 경남도가 1983년에 6천100만원을 들여 전 전 대통령 생가터를 구입해 건물을 복원했고, 생가 시설비로 합천군 예산 등 2억7천만원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관비 2천600만원이 들어갔고 매년 시설비 1천만원과 관리운영비 700만원을 지출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 폭파 위험 美여객기 필라델피아 비상착륙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에서 출발한 미국 여객기가 폭파 위험을 받고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7일(현지시간) 오후 2시경 아일랜드 새넌에서 출발한 US에어웨이 여객기 777편이 폭파 위험을 받고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다고 워싱턴포

스트와 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공항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객기를 공항 내에 고립된 지역에 착륙시켰으며, 승객들은 항공기를 빠져나와 인근에서 대기 중인 버스에서 기다렸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필라델피아 공항에 전화로 걸어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기에는 총 171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이 여객기는 필라델피아를 거쳐 피츠버그로 갈 예정이었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액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액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액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흥증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수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횡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원 : 0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4억
-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월810만)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월430만)

대지/전답

- ▷ 신기동(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매 3억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창고,공장 적합)
-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10억(펜션용지,귀농지,전원주택 적합)
-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신축주택 포함)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펜션,관광농원등 다양)
- ▷ 여수 들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